오차노미즈여자대학에서의 1년을 끝내며

오주영(한국・부산외국어대학교)

저는 오차노미즈여자대학에서 한 학기를 끝내고 2학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좀 더 많은 일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좀 더 많은 일본의 문화를 알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꽤나 오랜 시간 한국에서 떨어져 살았기에 외롭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2학기에는 좀 더 많은 유학생과 어울릴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1. 학교생활

저는 2학기도 1학기와 마찬가지로 학점이 필요했기에 유학생수업에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인상에 남았던 수업이 있다면, 일본의 면접의 한 종류인 [그룹 토론] 과 [회사에서 지켜야 할 매

너]를 배우는 수업과 일본의 문화와 역사를 알고 일본인 초등학생과 교류회를 가짐으로써 일본을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됐던 수업이었습니다.

저는 일본의 기업에 취업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전부터 일본의 면접에 대해 조사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룹토론]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그룹토론]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 [그룹토론]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수업에서 그룹토론이라는 과제를 할 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기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과제를 통해 연습을 한 결과, [그룹토론]이라는 것에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중 걸려온 전화에 대한 [전화 매너]라던지, 일하는 중 지켜야 할 매너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의 문화나 역사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수업을 들을 지 고민하던 중, 강의 계획서에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다루는 것 뿐만이 아닌 초등학생과 교류회를 가지는 수업이 있어 되게 흥미롭다 생각했기에 그 수업을 듣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업을 통해 일본의 여러 지역을 알게 됐으며 직접 흥미있는 지역에 방문해 그 지역을 조사하여 그것을 초등학생에게 발표한 것이 정말로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에게 일본의 여러 문화를 소개받았습니다. 정말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2. 아르바이트

저는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유명한 카페입니다. 1학기에 배운 경어를 사용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알게 된 선배들 그리고 후배들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유학을 시작했을 때, 수업 이외에는 경어를 사용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어가 정말로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많이 사용하게 되어 익숙해 지게 되었습니다.

3. 여행

여름방학 그리고 2학기에는 여행을 갔습니다. 여름방학 중, 동아리의 프로그램으로써 도쿄의 여러 곳에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나고야와 아타미에 다녀왔습니다. 여행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행을 통해 일본을 좀 더 알게 되었으며 일본을 좀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 1년 간 저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유학을 결정했을 때부터 제 자신의 나라, 한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많이 하고 싶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되짚어보면, 정말 유익한 유학생활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 1년이 정말로 한 순간에 끝나서, 슬프지만 유학의 경험은 좀 더 성장한 자신을 만들어주었습니다..